



◇뮤지컬 '도술가...'는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전통의 해체와 복원을 통해 문화적 화해로 풀어낸다. 사진은 6월24일 밀양연극촌 리허설 현장.

### 뮤지컬 '도술가-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디지털 사회의 삶 월명과 니체의 대안 "마음을 나누고 살자"

7월~22일 서울 엘지아트센터...9월부터 경주 공연

9월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 공연 작품인 뮤지컬 '도술가-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엑스포에 앞서 7월~22일까지 서울 강남 엘지 아트센터에서 첫선을 보인다.

월명 스님이 지은 향가인 도술가를 재해석한 연출가 이운택씨의 두 번째 연출작인 '도술가...'는, 올 초 선보였던 음악극 '일식'에 이어, 지난 세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세기의 비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대작이다. '일식'이 세기 전환기에 문화적이고 평화적으로 새 세상을 맞이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면, '도술가...'는 디지털세대와 아날로그세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전통의 해체와 복원을 통해 문화적 화해로 풀어내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들은 이것들과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는구나" 하고 노래하는 주인공 짜라(박철호 역)가 세상을 등진 진리로 상징되는 누이(이정화 역)를 찾아 부패와 독재, 절망의 세상 속으로 뛰어들

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일군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다.

특히 뮤지컬 '도술가...'는 연출가 이씨가 기존 뮤지컬의 성격에다 우리의 연극성을 찾는 작업을 보여 한국적인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우선 음악에 있어서 우리 나라 불교전통음악인 범패와 전통 영가, 속요를 사용했다. 또 우리고유의 선무도를 신세대들의 힘과 절묘하게 결합시킨 한국형 합창댄스 선무합창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전통의 요소들에 현대 대중음악 장르인 록, 발라드, 힙합, 테크노까지 뒤섞고 총동시극 가장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장르인 뮤지컬로 포장했다.

뮤지컬 '도술가...'는 독일철학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보여지는 인간중심사상과 신라의 화랑도 정신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신라 중기 혼돈기에 도술가를 지어 난세를 구하고 세상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한 월명스님 이야기로 위대한 동양의 짜라투스트라일 수 있다는 단서에서 출발한다.



◇연출가 이운택씨

세상속에서 짜라는 테크노댄스로 상징되는 요즘아이들과 개인을 속박하는 절대권력을 만나고, 2000년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디지털문화와 21세기 N세대적 삶의 방식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의문도 관객에게 던진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도시를 전염시키고 해가 들로 나누어지는 대환란이 시작되자, 재난을 피해 활자로 물러난 사람들, 주인공 짜라는 먼 옛날 신라의 월명스님이 그랬듯 구원의 노래로 사람들을 깨운다.

인간중심 사상에 근거한 일상성의 회복과 사랑만이, 난세를 극복하고 내일을 열어가야 유일한 대안임을 깨닫고, 새 세계를 열어가게 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이다.

6월 24일 폐교를 개조한 밀양연극촌에서 5개월여의 합숙 연습 끝에 일반에 처음 공개된 뮤지컬 '도술가...' 리허설 현장의 뜨거운 열기는 이번 공연의 성공을 예견하는 듯했다. 뮤지컬 '도술가...'는 서울 공연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2차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내 백결공연장에서 총 140회 공연을 갖게 된다. (02)2005-0114

이은자·천미희 기자 (e)lee@buddhapia.com

뮤지컬 '도술가-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7월 공연에 이어, <지지삼체요절>을 소재로 한 오페라 '지지'가 오는 9월 공연을 목표로 제작되고 있는 등 최근 불교를 소재 또는 주제로 한 연극들이 다수 선보이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무대 언어화가 활발해진다는 점에서 우선 반가운 일이지만, 이에 대한 교계 차원의 관심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서 이런 기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끝없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연극계에서 불교 소재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무모한 모험과도 같았다. 지금까지 선보인 다분히 불교적인 연극들은, 불자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 받았고, 일부관객과 언론의 관심 외에는 흥행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불교적 내용을 소재 또는 주제로 삼은 연극들이 총 15편(월평균 1.25편)이나 선보이면서 예

### "불교연극 많이 보자"

'도술가 '직지' 등 잇달아 무대에

교계 연극여건 열악

을 혼합한 음악극, 음악과 무용, 그리고 연극을 혼합시킨 총체극 등 다양성을 갖췄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팔만대장경 제작에 얽힌 사랑이야기, 혼돈의 시기 대안사상으로 떠오른 불교 사상, 불상제작에 얽힌 이야기 등 한결 풍성해졌다.

지난해 무대에 올려져 갈채를 받았던 뮤지컬 '팔만대장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순회공연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순수하게 불교계 역량만으로 제작된 작품은 지난해 6월 선보인 불교극단 하늘 개인날의 연극 '느낌, 극락같은'과 9월 선보인 오페라 '아미타불', 올 4월 선보인 뮤지컬 '오! 부처님' 3편 밖에 없어 여전히 교계 여건 성숙과 내적 역량의 강화는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연극 '느낌, 극락같은'으로 전국 연극제에서 연출상을 받았던 연출가 박종필씨는 "연극계 일부에서 소재의 독특함 때문에 불교소재의 연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수박겉핥기식으로 표출된 연극은 허상만 쫓게 되고, 자칫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심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불교의 철학을 가장 알기 쉽게 풀어 줄 수 있는 현대감각에 맞는 불교연극이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교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불자들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겠다"면서 "거듭되는 관심과 노력으로 시대의 언어로 보편화된 불교사상을 접목시키는 일이 바로 불교연극을 보편화하고, 대중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소재의 무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단 연극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서 불교는 우리 문화의 영원한 자양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연극계에서 선보인 불교소재의 작품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계 내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비평하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를 매개체로 한 새로운 포교방편의 싸이 꽃도 피우기 전 시들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은자 기자

## 용인에 문연 '돌조각 박물관'

석탑·석등·맷돌 등 1만여점 전시

'돌'은 말은 없으나 철학자에게 철학으로 음악가에게 음악으로 예술가에게 예술로 종교가에게 종교로 ~ (종락) 세월없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깊은 침묵으로 삼, 그 존재의 말로 있나니.

<조병화의 시 '돌'> 옛 돌 조각의 전시를 통해 선인의 숨결을 느끼고, 자연스레 우리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돌 조각 전문 '세종 돌 박물관'이 1일 경기도 용인에서 문을 열었다.

세종 돌 조각 박물관은 5000여평의 공간에 한국불교와 돌, 등자들의 마음, 12지신상 조형탑, 희노애락의 언덕, 탐라국의 등자들, 생활속의 돌, 돌집승과 함께, 민속신앙의 돌, 박수동네 등 10개 야외 전시관으로 구분해 율창한 숲을 배경으로 1만여점을 상설 전시한다.

사찰에서 예배와 기원의 대상이 된 석탑, 석불과 중생의 마음에 한줄기 빛을 주고자 밝혀두었던 석등, 고승의 사리를 온전히 지켜온 부도 등의 불교 유물에서부터, 연자방아, 맷돌, 다듬잇돌 등 우리 조상들의 생활도구, 그리고 왕릉을 보호하던 석수,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장승 등이 대자연속에 펼쳐진다. 특히 개관을 기념해 4,333개의 다듬잇돌과 열두띠 동물상으로 새롭게 조성한 12지 신상 조형탑이 눈길을 끈다.

세종 돌 박물관은 20년 동안 우리 옛 돌조각 수집과 보존에 노력을 기울여 온 불자 천신일씨((주)세종 대표)의 원력으로 이루어졌다.

천씨는 "한국미술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옛 돌 조각 작품을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할 것"이라며 "민속적, 종교적 측면 뿐 아니라 순수예술 작품으로서 돌조각의 조형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의 미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031)321-7001

이은자 기자



◇옛 돌조각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는 돌박물관은 총 10개의 야외전시관으로 구성되었다.

## 초여름 밤 산사 음악회

5일 진천 보탑사

초여름 밤을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울 산사음악회가 5일 저녁 7시 충북 진천 보탑사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는 음성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정철스님의 찬불가 공연과 영산재 이수자

동희스님의 범패공연 등 불교 음악을 비롯해 너트바나 실내악단의 비틀즈 히트곡 모음, 국악인 신영희씨의 판소리, 가수 이동민, 성악가 박연준 등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우리 노래가 여름 밤 산사의 저녁을 장식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진천 보탑사와 불교텔레비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사찰 기능을 창출하고, 불교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펼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은자 기자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 법구경 I·II

오소 리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소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전처럼 울린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The Diamond Sutra

## 금강경

오소 리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불'을 흔들며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웅으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The Heart Sutra

## 반야심경

오소 리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출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리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불자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 01. 탄트라 秘典 I
- 02. 탄트라 秘典 II
- 03. 탄트라 秘典 III
- 04. 탄트라 秘典 IV
- 05. 법구경 I
- 06. 법구경 II
- 07. 금강경
- 08. 반야심경
- 09. 환타와 더없는 깨달음
- 10. 심우도
- 11. 선심경
- 12. 라산 연교(동대사) 강연

-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우라 I
-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우라 II
- 15. 轉,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미조
- 16. 마음을 버리라 | 일제
-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 18. 명빈 가슴을 날려서 | 남진
- 19. 법의 연꽃 | 이규
- 20. 轉의 최고봉 | 백정과 대주

- 21. 내 사랑 인디아
-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 24. 사랑의 불타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li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라이프타임사